

## 교육은 무엇으로 되어나

자녀들에 대한 교육은 부모들의 의무이자 권리 그리고 최대의 관심사이다. 여기에서의 교육은 학문적, 정신적, 정서적인 모든 부분을 말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의 하소연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자녀들과의 팽팽한 관계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을 만날때마다 자녀들의 교육이 무엇으로 되어지는가에 대한것에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것을 느끼게 되는것같다. 세상에 자녀들을 잘못 인도하거나 잘못 가르치는 부모님들은 없는것같다. 이렇게 바르게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 가르침을 받는 자녀들의 결과는 부모들의 기대와 의도와는 전혀다른, 즉 오히려 반항적으로 벗어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것이다. 내가 만난 경우중에 한어머니는 자식이 두각을 나타내며 우수한 면을 보여주어 보dana은 교육을 위해 자신의 전삶을 걸고 기러기 엄마로 와서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하며 온갖 정성과 열성을 다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 곧잘 해내주고 있던 아이가 학교공부는 뒷전이며 학생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으로 문제를 만들어내며 공부를 포기하려는 상태가 되어버려 부모는 망연자실이다. 다른 경우는 아이에게 그리큰 부담도 무리스런 기대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공부는 뒷전이며 부모에게 거짓말을 반복하며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며 걱정을 끼치는 아이가 되어버렸다. 이밖에도 이러한 비슷한경우는 너무나 많이 있다. 부모의 바램과는 달리 아이들이 마치 청개구리처럼, 그리고 이유없는 반항처럼 벗어나는 경우들이 말이다. 이러한 경우는 사춘기 이니까 라고 이해하고 넘어갈수있는 범주를 뛰어넘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들이다. 이렇게 유스앤드웨밀리 포커스에 들어오는 자녀교육에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가정을 보면 공통적인것들이 하나있다. 그부모님들의 자녀교육에 “감동”이 빠져있는것이다. 그 감동이 빠져있는 교육은 부모들의 기대와 요구에 마지못해 아이들이 어느시기까지는 행동으로는 순종해서 부모들을 따라가 주다가 어느날부턴가 아이들이 더이상 그렇게 하지않기를 작정해버리는것이다. 즉 더이상 참을수가 없어지게 되는것이다. 이유는 자신의 마음이 따라가주질 않는것이다. 머리로서는 자신이 왜 공부를 해야하고 왜

부모가 요구하는지를 이해는 하지만 마음이 그것을 따라가고 싶지 않는 순간이 되어진것이다. 즉, 감동이 없는것이다. 다시말해서, 가르침이나 교육은 감동이 빠지면 끝까지 해낼수있는 힘이 없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교육은 감동이다”라고 까지 말할수있는것이다. 머리로서는 공부를 해야하는 것을 아는데 감동이 없어 마음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당사자인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괴로울까를 우리 부모들은 생각할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감동이 없어 억지로 노력해야하는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은 한계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부모가 날위해서 공부열심히 하라고 하는것은 아는데 그 공부는 정말 하기싫은것이 현실이다. “그래도, 내가 해야지!” 라고 결심하게 할수있는것은 부모의 진실한 사랑의 표현으로 자녀들의 마음을 감동시킬때 작동이 되어지는것이다. 그래서 “컴퓨터나 하고싶고 친구들과 놀고만싶고 공부는 하고 싶지 않은것이 사실인데 날 사랑하고 아끼는 엄마아빠 때문에라도,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 엄마아빠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나를 이기고 공부를 해야지 “라고 그 싸움에서 이길수있는 순간이 있게 만드는것은 바로 “감동”이 있는냐 없느냐의 차이라는것이다. 그것은 비단 공부의 영역에서 뿐만이 아니다. 도덕, 윤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아주 우수한 많은 청소년들에게 “너는 공부가 그렇게 재미있니?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게?” 라는 질문을 하면 극소수를 빼고 거의가 “공부가 하고 싶고, 공부가 재미있는 사람이 어디있어요”라며 “엄마 아빠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요”라는 말을 하는것을 듣게 된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깔려있는것을 보게 된다. 다시말해 부모의 진실한 사랑이 아이들에게 바르게 표현되고 전달되어 감동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행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인것이다. 바꿔말해 감동이 없는 교육은 언제 어떻게 바닥을 드러낼지 모른다 라는것이다. 그래서 “왜,우리아이가 갑자기 저러는지 모르겠어요”하며 후회하는 부모는 되지 않는 것이다. 자녀를 사랑으로 감동시키자!. 그러나 꼭 기억하자. 그 사랑은 무조건 퍼부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자녀의 인격의 성숙과 성장의 목적을 가진 이성적인 사랑이지 감정의 놀음이 아닌것이다.